

연구노트

- 십대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정책 더욱 정교화되어야

정해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 연구 : 남성의 군복무이행, 성역할 재사회화, 성평등 정책 수용을 중심으로

안상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십대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정책 더욱 정교화되어야

정해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1년에 학업을 중단한 여성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배경과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세계를 살펴보기 위해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인 A학교를 찾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혜원이는 A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치고, 미혼모자시설에 거주하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임신 7개월이 다 되어서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혜원이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학교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A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행운(?)을 누렸다. 당연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운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십대 미혼모가 위탁형 대안학교를 다니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미혼모를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불과 1년 전인 2010년의 일이라는 점이다. 2009년 4월 “○○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이 임신을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으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다. ○○여고 보건교사는 입덧으로 괴로워하는 학생을 우연히 발견하고 담임교사와 이를 의논했는데, 이튿날 담임교사와 3학년 부장교사는 그 학생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휴학과 퇴학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종용하였다. “여학생이 임신한 행위는 징계(퇴학)감”이라며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조치 할 수 있도록 정한 ○○여고의 생활규정을 제시하여 진정인은 결국 자퇴원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고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퇴를 강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 장에게는 당사자 학생을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피진정인(○○여고 교장)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학 중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한 여고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자퇴, 전학, 휴학을 강요받거나, 학교의 징계가 두려워 스스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 권고하였다. 그 결과, 2010년 교육부는 십대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위탁형 대안학교를 미혼모시설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4년 현재 17개 위탁형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가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남아있다.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려면 ‘학교장 추천’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탁형 대안학교 담당자는 미혼모가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로부터 허락을 받는 데 따르는 고충이 적지 않음을 토로한다.

위탁을 한다는 게 학교장 재량이거든요. 그래서(학교장이) 추천을 해줘야(위탁학교에) 오는데, 애는 와 있는데 추천을 안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가서 몇 번을 봐 주십시오 하다가 부모도 지쳐가지고, ‘선생님이(학교에) 한 번 더 가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 저도 지금 교육청이랑 계속하고(이야기하고)있고, 장학사도 몇 번씩 대시해도 학교가 꿈쩍을 안해요’라고 했더니, 이 아빠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학교에) 더 구걸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측에서는 유아무야 봐주면 학교 명예가 손실된다 이거예요. 입학생을 받는 데 지장이 생긴다. 명문학교가 명문학교 아닌 걸로 떨어진다. 실업계가 더 강하고, 다음에 사립이 강한 거 같아요.

현재와 같이, 미혼모의 위탁교육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학교장 재량사항¹⁾으로 남아 있는 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혼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한편,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십대 미혼모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더 많은 십대 미혼모가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8년 제석봉 등의 연구²⁾에 따르면, 임신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미혼모 비율은 42.5%로 나타났으며, 2007년의 홍순혜 등의 연구³⁾에서는 이보다 월등히 낮은 28.6%만이 재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2010년부터 미혼모대상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M미혼모시설을 보면, 불과 21.3%만이 임신 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M 미혼모시설 십대미혼모 재학여부별 분포

	전체	2010	2011	2012	2013
중학교 재학	3(4.9)	-	1	1	1
고등학교 재학	10(16.4)	-	5	2	3
중학교 중퇴	16(26.2)	2	8	5	1
고등학교 중퇴	32(52.5)	5	8	8	11
계	61(100.0)	7	22	16	16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②항 :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석봉 외(2008), 학생미혼모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3) 홍순혜 외(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이처럼 십대 미혼모의 대다수가 임신 당시 이미 학교를 떠난 상태이지만, 위탁형 대안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이미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미혼모가 된 십대 청소년이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복학절차를 통해 학적을 복원해야 한다. 복학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들은 부모의 폭력을 피해 가출했거나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혹은 가족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있어 위탁형 대안학교는 자칫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 미혼모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십대 미혼모 또한 위탁형 대안학교를 통해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십대 미혼모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 10대 출산율을 통해 추정된 십대 미혼모는 연간 3,000명에 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분만 건수, 입양기관의 미혼모 연령 등을 통해 간접 추정할 경우 십대 청소년 임신은 연간 15,000건에 달할 것(국가인권위원회, 2010)으로 이야기된다. 그럼에도 2008년 전국 48개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미혼모가 십대 미혼모를 포함하여 총 2,358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볼 때 상당수의 십대 미혼모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들을 위한 학습권 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문제에 주목하고 자녀를 키우는 양육 미혼모를 위해 고등학교 학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수혜자가 얼마되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자녀를 입양한 십대 미혼모는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방안이 없다는 문제 또한 안고 있다. 십대 미혼모는 다른 연령대의 미혼모보다 양육보다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도 강구되어야 한다.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 연구 : 남성의 군복무이행, 성역할 재사회화, 성평등 정책 수용을 중심으로

안상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

성평등한 사회의 구현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와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합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이에 따른 부담을 짊어진 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동반자로서 일생을 살아야 하는 여성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일원인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부하, 상사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남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되돌아보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개편할 수 있는 지점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성평등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다수 남성의 공통경험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남녀 성별관계에서도 주요 전환점으로 꼽히고 있는 군복무 이행에 주목하여 군복무 전후로 나타나는 남성의 삶을 조망하고, 남성의 군복무 이행이 남성의 성역할 재사회화와 가정, 직장, 사회생활 등에서의 성역할 수행, 성평등 정책에 대한 수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기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성평등 사회에서 남성의 참여 촉진 및 남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군복무와 군대문화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대부분의 남성은 군대에 입대하여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장 39조 1항¹⁾과 병역법²⁾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성은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병역법에

1) 헌법 2장 제39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병역법 1장 제3조(병역의무) ①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따르면,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만 예외적으로 복무할 수 있다. 군복무 이행은 이와 같이 대부분의 남성에게는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의무로서 군복무 과정을 거쳐야하고, 현행 병역법 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육군 24개월, 해군은 26개월(해병은 24개월), 공군은 28개월을 복무하게 된다.³⁾ 최근 군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과거 36개월의 복무기간을 채워야 했던 것에 비해 복무기간이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전혀 다른 생활환경, 전혀 다른 생활양식을 경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화 자체로 인지되는 이질성이 ‘길다’, ‘짧다’라는 복무기간의 차원을 뒤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군입대자들의 연령대는 19세~25세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이 시기는 발달단계 상으로 성인기에 접어드는 이행기에 해당되고, 이성관계 면에서는 주요 탐색기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학업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등 심리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이기에, 남성의 삶에서 중대한 인생사건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에 젊은 청춘의 남성들은 입대 전에는 거의 경험하지 못한 복종, 집단성, 동질성이 강조되는 이질적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대해 홍강의(2007)는 일종의 문화적 충격에 비유한 바 있다(윤민재, 2008 재인용).

군대조직에 대해 장용선(1991)은 ‘국가라는 더 큰 사회의 안전보장을 위해 특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 사회적 단위’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군대는 임무 수행의 방법적 측면으로 집단성과 계급의 권위, 위계질서 그리고 강제성과 타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철저한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단절과 격리를 통해, 과거의 시민사회, 입대 전 자신의 지위와 업적 및 상식과 가치관 등으로부터 변화되어 군인으로서의 자기 주체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군대조직이 갖는 이러한 특수성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군대문화는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속성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독특한 하위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홍두승(1993)에 의하면 ‘군대문화는 군사문화와 다른 개념으로 군 조직 내의 특성과 그 구성원들에 의해 생성, 발전된 문화적 복합체를 구성한다’(홍두승, 1993; 59). 한편 김순현(1990; 403)은 군대문화에 대해 ‘하나의 특수한 사회체계 안에서 군인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태도 그리고 신념체계 등의 총체로서 군인 개개인 또는 집단의 사유작용과 행동절차를 망라하여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생활 양식 전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군대문화의 특징으로 윤민재(2008)는 서열주의, 집단주의, 남성중심주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등의 특징을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군대는 남성의 절대적 우위, 복종, 권위존중 등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전형적 모델집단인 반면 부드러움, 연민, 공감 등은 여성적인 것으로 배척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병역법 제19조에 의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권한으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법과 실제 복무기간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4년 4월 입대일 기준으로 육군/해병/의경은 21개월, 해군/사회복무요원 23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군인되기와 남성성 및 성차별주의

우리사회에서 군인이 남성성과 동등한 의미로 간주되고 있듯 군대문화는 남성다움을 유지, 강화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군인으로서 남성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징병검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징집제도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구분하고 있다. 남성을 선택적으로 징집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시민권과 유사한 권리의 획득을 의미(오미영, 2002p. 101) 하며, 징집 대상이 됨으로써 부여되는 남성성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무엇인지를 변별하게 해 주는 관문이 된다. 이 때 여성들은 남성으로부터 보호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고, 남성에게 감사해야 될 의무를 갖는다(오미영, 2003, p. 106). 이영자는 군인은 곧 남성이라는 등식이 적용됨에 따라 군대문화는 군사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결합시키는 이데올로기 생산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다. 훈련소에 입소하여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서의 신분 전환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제복을 입고, 이름 대신 번호나 계급으로 불리며, 군대에서만 통용되는 규범과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도록 요구받게 된다(2005; 83-4). 즉 군인이 된 남성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과제는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하여 왔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탈사회화이다. 이는 훈련과 교육 등의 공식적인 통제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일과시간 이외의 내무생활이나 휴식시간 등의 비공식적인 경로로 이루어지는 암기강요, 열차려, 언어적·비언어적 위력 사용과 같은 소위 다양한 군기잡기 관행을 통해서도 행해진다.

우리사회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고, 선택된 자만이 겪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희생, 봉사, 헌신으로 상징성을 갖는 「불이익 측면」과 인내심, 조직 적응력, 문제해결력, 원만한 대인관계, 리더십을 갖춘 표준적 인격체로 평가되는 「이익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군인이 되는 것의 불이익 측면은 배은경(2001)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 군대는 자신의 인격 전체를 일정기간 국가의 통제 아래 양도하는 전인격적 징발을 당연시 해 왔기 때문에, 군대는 끌려가는 곳이며, 무언가 아파이고 억눌림이다’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된다. 그 이면의 이익 측면을 보면, 군복무 이행을 하나의 도덕적 기준으로 삼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들이다.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남성의 표준으로 인정해 주거나, 배우자 선택이나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평가, 면접, 승진, 업무배치 등의 인사결정과정에서 유·무형의 혜택을 주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은 군대라는 전인격적인 징발의 부산물로서 힘든 군 생활을 통해 깎이고 다듬어졌을 ‘인내심’과 ‘조직적응력’,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안상수, 2007).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군 복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측면이나 이익 측면에 관한 논의는 의무복무 수행에 따른 보상 논란의 일환으로 주로 다루어짐에 따라 남성의 삶에서 실제적인 효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논의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군복무 이행이 왜곡된 남성성을 조장한다거나 여성 차별적인 군대문화의 부작용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비교적 많다. 군대가 상명하복을 내면화해 복종적 심성을 만들어내는 곳(사랑, 1993), 왜곡된 여성상의 학습장(조성숙, 1998; 장필화, 조형, 1991)이라는 지적과 함께, 군대를 통해서 얻어진 남성의 희생과 보상 의식, 여성차별의 정당화 의식, 가장의식, 성별 분업적 고정관념 등이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인숙(2009) 등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군사문화의 부작용 측면을 조망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분단이라는 한국적 현실 속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결합된 군사이데올로기는 남성 중심적인 국민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이 되었고(김현영, 2002), 이 과정에서 여성은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오미영, 2001)는 것이다(심미혜와 엔도 유미, 2011 재인용). 이미경(2003)은 유교적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 억압은 외적으로 쉽게 드러나지만, 징병제에 의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나라를 지키는 남성의 영웅적 면모, 희생적 측면으로 가려져 있으며, 내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의식을 지배해 직접적으로 남성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을 억압하는 간접적 기제로도 작용한다고 주장한다(심미혜와 엔도 유미, 2011 재인용). 군대문화의 중 측면의 하나인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문제 역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남성성이 강화된 군대 성문화에서 장병들의 성적 경험과 성적 태도는 가부장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여성 섹슈얼리티를 대상화하고 억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만든다(유혜정, 2006).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군복무 이행은 한국 남성의 성역할 수행이나 젠더의식과 밀접한 연관된다. 이수연, 백영주, 박군석(2009)이 지적하였듯이 한국사회는 한편으로는 남성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의무를 부여한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지 말아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남을 이끌 줄 알아야 하는 등 수많은 남성성의 규정이 있다. 군대는 이러한 남성성의 신화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신화의 순환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향후 연구방향 및 결론

이 연구는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남성의 군복무 수행이 성별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남성성에 대해 여과 또는 증폭 기능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군복무 과정에서 어떤 기제에 의해서 작동되며, 이후 남성의 삶이나 성별관계나 성평등 정책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남성의 군복무가 성역할 정체성 재사회화와 성평등 정책 수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상당한 연계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군복무 중에 성역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강화되고, 성차별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군대문화가 형성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연구의 경우, 일반화된 군사 이데올로기의 부작용 현상 중 하나로 군복무 이행을 파악하고, 전체 남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대학생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데 그치고 있다. 군대 내 양성평등 환경 조성과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군대 조직문화가 남성 중심적이라는 기본적인 가정 하에서 양성평등한 군대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은 높았으나, 이러한 정책이 어떠한 범위로 어떠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그 효과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군복무 이행이 ‘국가를 위한 헌신’ 또는 ‘희생’으로 상징화되는 가운데, 실제 군복무를 이행한 남성이 갖는 희생이나 자긍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러한 희생 및 자긍심 요인이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 정책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군복무의 어떤 측면이 희생 논리의 중심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희생 논리를 경감시킬 수 있는 군복무 환경 및 조직문화는 무엇이며, 어떠한 개선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다수 남성이 군의무복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군복무에 따른 희생논리나 자긍심 요인이 남성성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며, 성평등적 관점에서 군복무환경에 대한 개선점들을 도출해 봄으로써 향후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남성의 수용성 제고 및 성평등한 사회 실현에서 남성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과제 도출 및 지원방안 마련에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 · 고 · 문 · 헌

- | | |
|---|--|
| 김순현 (1990). 군사문화, 서울: 을지서적. | 유혜정 (2006) 남성섹슈얼리티의 사회화 기제로서 군대 성문화 연구, 상지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
| 배은경 (2000). 군가산점제 논란과 쟁점, 여성과 사회, 11. | 윤민재 (2008). 한국사회의 군대문화와 군자살사고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담론 201, 11(1), 165-193. |
| 사랑 (여성모임) (1993). 남성연구: 때론 입지만 함께 가야할 반쪽에 대한 보고서, 나라사랑. | 이미경 (2003). 한반도 분단구조 속의 여성: 가부장적 군사문화지배하의 남북한 여성, 국제지역연구, 7(2), 229-253. |
| 심미혜, Endo Yumi (2011).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차별의식 및 군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문제, 17(1), 1-17. | 이영자 (2005) 한국의 군대생활과 남성 주체 형성, 현상과 인식, 가을호. |
| 안상수 (2007).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페미니즘연구, 7(2), 321-349 | 이수연, 백영주, 박군석 (2009). 남성의 균형적 삶을 위한 젠더의식 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오미영 (2001) 군사화에 의한 젠더위계체계강화, 신라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 장용선 (1991). 군복무가 후기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년연구, 14, 23-67. |
| 오미영 (2002). 군사주의와 젠더화된 위계질서, 여성연구논문집, 13. | 장필화, 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한국 여성 연구소, 여성학논집, 8. |
| 오미영 (2003). 군사주의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연구논문집, 14. | |

조성숙 (1996). 군대와 남성,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220-225. 홍두승 (1993). 군사문화와 군대문화는 별개의 것이다, 한국논단.

홍강의 (2007). 우리나라 자살의 현황과 군복무중 자살행동의 이해, 군의
문사진상규명위원회 토론회 자료집.